

아시아권내 상황화 신학의 발달 과정

이 현 모

〈선교학·조교수〉

들어가는 말 - 상황화 신학의 탄생 배경

1945년 세계 제 2 차 세계 대전의 종식과 함께 세계의 정치, 사회, 경제적 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오던 서구 제국주의적 식민통치의 시대가 끝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마침내 독립을 얻게 된 것이다. 독립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국가들이 당면한 요구 중의 하나는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 가운데서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식민지 국가들은 서구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식민통치를 받았었으므로 그들의 자기 정체성 추구에 기독교에 대한 의문도 포함이 되어지게 되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에서 고유한 철학과 종교를 다시 재고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선교지 교회들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전해졌던 서구 중심 신학의 내용과 방법론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게 되었다.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문화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¹ 하나님의 계시는 특정한 형식을 가졌다기보다는 무형의

것으로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는 이 무형의 계시를 전달해 주기 위한 매체가 필요하였고 이 매체로는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의 틀이 사용되어졌다. 서구 신학이란 하나님의 계시 혹은 성서의 가르침을 서구의 철학과 문화, 역사적 상황이라는 틀을 사용하여 전달 및 인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어거스틴의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플라톤 철학이라는 그릇으로 떠서 전달하려는 시도이고 아퀴나스의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매체로 사용하는 신학 제도이다. 현대의 서구 신학은 현존하는 서구 철학들인 관념주의 혹은 실존주의, 논리실증주의 등의 철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형성되어지는 신학들이다. 그러므로 민족적 정체성의 대두와 함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지금까지 서구 신학이 전혀 다른 철학 체계와 전혀 다른 문화, 역사를 가진 제삼세계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전파되어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 강요되어져 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를 일부 학자들은 ‘신학적 제국주의’ 혹은 ‘신학의 바벨론 포로’라고까지 지칭하였다.² 무엇보다도 이들 제삼세계 교회들은 서구 신학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아픔의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실제 서구 신학의 주제들은 관념론적인 문제들에 답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많지만 제삼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빈곤’, ‘부정의’, ‘폭력’, ‘독재정치’ 등인데 이에 대한 신학적 응답의 시도를 서구 신학에서 진지하게 다루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회들의 새로운 인식이 폭 넓게 퍼지면서 새로운 신학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신학 운동의 대부분

¹ 이곳에서 신학이란 하나님의 계시가 현실 상황에 비추어져서 의미를 형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² Gustavo Gutierrez, “Two Theological Perspectives : Liberation Theology and Progressive Theology”, in *The Emergent Gospel : Theology from the Underside of History*, eds., Sergio Torres and Virginia Fabella (Maryknoll : Orbis Books, 1978), 248.

은 자신들의 상황에 필요한 답을 주는 신학을 그들의 철학이나 그들의 인식적 방법론으로 시도해 보는 상황화 신학이었다. 한국 교회는 1960년대에 토착화 신학 논쟁의 불을 겪고 난 이후 복음주의 노선에서는 이러한 신학적 시도를 위험한 자유주의적 흐름이나 불필요한 신학적 움직임으로 보는 시선이 팽배하였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러한 시도의 대부분이 신학적 자유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그룹에 의하여 주도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상황화 신학의 필요성조차를 완전히 부인한다는 것은 커다란 오류이며 서구 신학의 신학적 제국주의에 계속 안주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오히려 현 아시아적인 상황에서 선교의 부진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복음주의적 상황화 신학의 연구와 발전이 적극적으로 필요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를 보면서 아시아의 복음적 상황화 신학을 제시하려는 것이 본고의 커다란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는 아시아의 상황화 신학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재까지 제시되어진 대표적인 아시아 상황화 신학들과 이들이 제시한 아시아적 상황을 연구하여 보고 이에 대한 비평적 분석에 근거하여서 아시아의 복음적 상황화 신학의 기본 틀을 제시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중 첫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아시아 권내의 상황화 신학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상황화 신학의 정의

논리의 전개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우선 상황화(contextualization)라는 용어와 신학적 상황화 그리고 상황화 신학의 정의를 내려보겠다.

선교학 분야에서 ‘신학적 상황화’ 혹은 ‘상황화 신학’이라는 용어는 최근에 들어서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용어이지만 이 용어의 핵심인 ‘상황에 맞추어 놓다’라는 개념은 신학의 다른 분야들에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Hermann Gunkel이 성서학 연구 분야에서 이미 이 ‘상황’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Sitz in Leben’이라는 용어를 이미 오래 전에 소개하였다. Gunkel은 이 용어를 성서의 문학적 장르가 발원되어진 성서 인물들이 살았던 실제적 상황이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³

상황화라고 번역한 contextualization이라는 용어는 context라는 용어에서 왔고, 이 용어는 다시 라틴어의 contextus라는 용어에서 유래되었다. contextus라는 용어는 ‘연결’, ‘(이야기 따위의) 일관성’, 혹은 ‘함께 짜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에 의하면 context라는 단어는 몇 가지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1) 언어에서 단어들을 함께 짜맞추다 ; (2) 문장이나 말에서 앞이나 뒤의 특정한 단어들과 긴밀히 연관이 되어서 그 전체 문장에 의미를 조명하여 주는 문맥 ; (3)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일련의 관계되어진 조건들, 즉 환경 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contextualize라는 말은 ‘적절한 조건이나 환경 혹은 상황에 맞추어 놓다’라는 의미이며 어원학적으로 contextualization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을 상황 가운데 적절하게 놓는 행위 혹은 개념이나 생각을 상황에 적절하게 보이도록 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원래 상황화라는 이 용어는 문화인류학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이 용어를 신학의 범주에 차용한 것이 ‘신학적 상황화’(theological contextualization)이다. 그러므로 ‘신학적 상황화’란 ‘기독교 복음을 상대 문화의 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신학적 상황화’라는 용어가 사전적 의미에서는 명료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신학적 상황화의 실제 적용의 면에서는 정의상 많은 불일치가 있다. 어떤 선교학자들은 이 용어를 복음의 타문화권 커뮤니케이션에만 관련되는 것으로

³ Justin S. Ukpong, “What is Contextualization?” *Neue Zeitschrift für Missionswissenschaft* 43, no. 3(1987) : 162.

정의하고 있고⁴ 혹자들은 이 용어를 지역 신학의 범주에로만 국한시키기도 하고⁵ 혹자들은 이 용어를 복음에서 그 문화적 껍데기를 벗겨내는 작업으로만 정의하기도 한다.⁶ 이 용어가 선교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어진지 거의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황화라는 용어의 정의가 학자들간에 일치되지 않고 있다.⁷ Hesselgrave도 이 정의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황화라는 용어에 대하여서 공통적으로 용납되는 정의는 아직 없고 오직 여러 제안들이 있을 뿐인데 이들 모두는 서로 그 용납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⁸ 그러므로 이 상황화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려면 논자는 자신의 정의를 우선 명백히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 논자는 상황화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다. 신학적 상황화란 “기독교 복음의 개념과 생각을 주어진 사회 문화적 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지속적인 행동”이다. 이 정의에는 네 가지

⁴ Bruce J. Nicholls, “Theological Education and Evangelization”, in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637, M. Bradshaw and P. Savage, “The Gospel, Contextualization, and Syncretism Report”, in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1226.

⁵ Theological Education Fund, *Ministry in Context : The Third Mandate Programme of Theological Education Fund(1970~1977)* (Bromley : New Life Press, 1972), 19, Louis J. Luzbetak, “Signs of Progress in Contextual Methodology”, *Verbum SVD* 22 (1981) : p. 39.

⁶ Bradshaw and Savage, 1226, Norman R. Ericson, “Implications from the New Testament for Contextualization”, in *Theology and Mission*, ed., D. J. Hesselgrave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8), 80, Donald A. McGavran, “The Biblical Base from Which Adjustments Are Made”, in *Christopaganism or Indigenous Christianity?* eds., Tetsunao Yamamori and Charles R. Taber (Pasadena : William Carey Library, 1975), 42~42.

⁷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 Orbis Books, 1991), 425.

⁸ David J. Hesselgrave and Edward Rommen, *Contextualization : Meaning, Methods, and Models*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9), 35.

선교학적으로 주목해야 할 요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다. 이는 신학적 상황화의 대상은 신학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개념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곧 신학이 된다. 두 번째는 “주어진 사회 문화적 상황”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상황화가 이루어져야 할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단순한 고전적 개념의 전통 문화가 아니라 변화되어지는(dynamic) 현재의 사회 문화적 상황이 상황화의 범주이다. 세 번째는 “상황 안에(in)”라는 것인데 이는 상황화의 방법론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상황화는 그 문화권 내부자의 emic perspective를 그 기본 방법론의 관점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행동”이라는 것으로서 상황화 작업은 한 번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on going dynamic process)이라는 것이다.

다른 문제를 하나 더 언급한다면 context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혹자는 이 상황을 전통 종교에 국한시키기도 하고 혹자는 문화의 관습까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혹자는 빈곤, 착취, 인종차별 등의 넓은 의미의 사회적 문제들까지를 포함하여서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복음주의자들을 포함하여서 대부분의 상황화 신학자들의 관심은 넓은 의미의 사회적 문제 전체와 전통 종교, 철학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상황화 신학의 대상은 이 모든 범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아시아의 상황적 배경

아시아는 제삼세계 가운데서도 독특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 남미 해방신학의 모체가 되었던 1968년 메델린(Medillin) 회의는 남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답변을 요구하는 독특한 그들의 상황적 문제로 빈곤, 부정의, 폭력 등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⁹ 이 세 가지는 그 이후 많은

지역에서 상황화 신학의 대표적 명제로 등장하곤 하였다. 그러나 아시아는 이러한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세계 해방신학자들의 이력을 연구하던 Deane William Ferm은 아시아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아시아적 특성(Asianness)’과 ‘제삼세계적 특성(Third Worldness)’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아시아적 특성’이란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장구한 역사와 체계적 조직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의 고등 종교, 철학, 세계관, 전통, 역사들을 의미한다. 어쩌면 아시아가 현재 가장 미복음화된 대륙으로 남아 있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 아시아적 특성 때문일 것이다.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는 그들 스스로의 잘 발달된 고등종교나 철학이 약하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비교적 쉽게 기독교가 그들의 전통을 뚫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아시아에서는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아시아의 전통적 종교나 철학, 역사에 비하여서 쉽게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서구 철학의 옷과 틀을 사용한 서구 신학에 대하여서 아시아 특유의 철학으로 매개되어질 수 있는 아시아적 신학의 필요가 하나의 답변을 요구하는 신학적 상황으로 존재하게 된다. 두 번째로 ‘제삼세계적 특성’이란 일반적으로 제삼세계가 가지는 문제들을 의미한다. 아시아도 남미나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제삼세계의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빈곤의 문제는 아시아의 큰 과제이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와 부유한 국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상대 빈곤이 극히 높은 지역이다. 동시에 오랜 전제주의의 잔재로 독재정치와 공산정권 등의 아픔이 있고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정치적 폭력과 전쟁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다른 지역과 같이 이들도 해방이라는 주제에 필연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아시아의 상황은 이러한 이중적 과제를 가지고 있고 아시아의 신학은 이들 중 어느 하나에 주력하는 것보다는 이 양자에 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⁹ John Desrochers, *The Social Teachings of the Church* (Bangalore : Sidma Press, 1982), 227~38.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신학적 조류에 따라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로마 가톨릭 그룹과 개신교 에큐메니칼 그룹 그리고 개신교 복음주의 그룹의 상황화 신학 발달 과정을 살펴보겠다.

로마 가톨릭 그룹의 상황화 신학 발달 과정

로마 가톨릭에서 상황화 개념이 처음으로 공식적 인정을 받은 것은 바티칸 제2차 공회였다. 가톨릭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서구 출신의 추기경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서구 출신의 추기경들은 비로소 제삼세계의 독특한 소리들을 듣게 되었다. 특별히 상황화 신학 전개에 문을 열어 준 결정은 두 개의 보고서에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Gaudium et Spes*이고 다른 하나는 *Ad Gentes*였다.¹⁰

*Gaudium et Spes*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역사상 최초로 사회, 문화, 정치 문제를 다룬 문서였다.¹¹ 이 문서는 복음이 상황화되어야 한다는 사명의 문화적 차원을 다른 어떤 문서보다도 더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다. 인류 평등, 문화와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관계, 문화 형성에서 인간의 참여 그리고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명, 문화와 그 문화적 표현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책임 인식의 문제 등이 이 문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문화의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기독교적 가르침과 문화를 조화시킨다는 것은 때로 어려운 작업임”을 지적하고 그러나 그 어려움이 “신앙의 생명까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¹²

¹⁰ 바티칸 제2차 공회의 보고서들을 보려면 Austin Flannery, *Vatican Council II: The Conciliar and Post Conciliar Documents* (Northport: Costello Publishing Co., 1975)를 참조하라.

¹¹ Joseph Germlion, *The Gospel of Peace and Justice, Catholic Social Teachings since Pope John* (Maryknoll: Orbis Books, 1976), p. 139.

¹² Walter M. Abbott, *The Documents of Vatican II* (Piscataway: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은 신앙에 대한 이해를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경각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¹³ 결국 이러한 견해는 “새로운 신학적 탐색(new theological investigations)”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자신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좀더 적절한 방식으로 교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하는 것이다.”¹⁴ 이러한 주장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상황화 신학이 전개될 수 있는 공식적 문을 열어 주게 되었다. 그러나 *Gaudium et Spes*는 “계시 진리를 문화적 상황에 맞추는 과정에서 그 진리의 의미나 중요성이 깨어져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단서를 달고 있다.¹⁵ 즉, 복음을 사회 문화적 상황에 적용시키되 기존의 해석적 범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의 사항을 첨부한 것이다.

로마 가톨릭의 선교에 관한 문서인 *Ad Gentes*도 역시 복음이 특정한 문화적 상황에 적절하게 보이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 문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교회의 삶이 선교지의 사회에 이질적인 것으로 보여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¹⁶ 즉, 이는 선교에서 선교지의 사회와 문화를 반드시 복음 전파 과정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티칸 제2차 공회에서 신학적 상황화 작업에 대한 문을 열어 주자 이후의 각 지역별 로마 가톨릭 주교회의에서는 이러한 주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남미에서는 메델린 회의와 푸에블라 회의 등을 거치면서 남미 해방신학이 틀을 형성하여 가게 된다. 아시아에서는 남미에 비하여서 조금 늦은 시기지만 1970년에 마닐라에서

New Century Publishers, 1966), pp. 268~69.

¹³ *Ibid.*, p. 268.

¹⁴ *Ibid.*

¹⁵ *Ibid.*

¹⁶ *Ibid.*, p. 611.

아시아 주교회의(The Asian Bishops Meeting)가 열리고 이 회의에서 아시아 상황에서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는데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찾아냈다. 첫 번째 영역은 ‘영양실조와 질병을 수반하는 빈곤의 문제, 전쟁으로 인한 상처, 고통, 불안’ 등이었고 두 번째 영역은 ‘인구의 64% 이상이 25세 이하인 청소년이 많은 인구 구조’이었고 세 번째 영역은 ‘유구하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 역사, 전통의 대륙’이라는 것이었다.¹⁷

1970년 모임과 그 이후 이어지는 1974년 타이페이에서의 the First Plenary Assembly와 1979년 켈커타에서의 the Second Plenary Assembly 등의 지역별 모임에서 이러한 문제에 답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교들은 ‘교회의 역할’, ‘전도의 사명’, ‘기도의 개념’ 등의 문제를 고찰하게 되었다. 가난한 자들과 연관되어진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서 주교들은 자신들을 아시아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 편에 위치시키고 그들의 빈곤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다. “교회는 궁핍과 비참함이 가득 찬 바다에서 홀로 풍요의 섬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이들은 선언하였다.¹⁸ 동시에 주교들은 부정의와 압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행동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의미는 각자의 나라에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불행한 자들과 힘없는 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모든 형태의 부정의에 대항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 나라의 전체적인 발전(total development)에 헌신하기로 한 것이다.¹⁹

이들은 또한 극히 다양한 문화와 종교 상황 가운데서 전도의 사명을 신학적으로 다시 반성(反省)하여 보았다. 타이페이에서의 the First Plenary

¹⁷ Desrochers, 378.

¹⁸ *Ibid.*, p. 379.

¹⁹ *Ibid.*, p. 381.

Assembly에서 이들은 ‘오늘날 아시아인의 추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현대 아시아에서의 전도(Evangelization in Modern Day Asia)”라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에서 아시아인의 추구는 “그들의 생활과 노력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는 것, 파괴적 세력을 극복하고 그들 사회에서 새로운 통합을 이루는 것, 새로운 형태의 굴레를 만드는 조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좀더 인간적인 삶과 자유, 인간성의 보존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국가들 간에 좀더 참된 연합을 이루는 것”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²⁰ 이 추구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아시아에서의 복음화인데 이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동역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시키는 “삶의 대화(dialogue of life)”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참된 지역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다.²¹

1979년 켈커타에서의 the Second Plenary Assembly에서는 기도와 인간의 해방과 개발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이들은 기도를 모임의 참가자들이 억압받고 무시당한 사람들의 해방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으로 보았다. “기도란 이기적이고 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부정의가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란 오늘날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명과 행동들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²²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시아에서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들의 상황화 신학으로 “개발의 신학(theology of development)”을 형성하여 갔다. 이 “개발의 신학”은 남미의 해방신학과는 그 방법론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물론 일부 아시아의 가톨릭 학자들 중에도 급진적 과격한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류는 남미의 혁명적 해방론과는 차이를 보이는 개발론을 주장한 것이었다. 남미의 해

²⁰ *Ibid.*, p. 383.

²¹ *Ibid.*, p. 384.

²² *Ibid.*, pp. 387~388.

방신학은 사회 분석의 방법론으로 불연속과 대립을 기본으로 하는 갈등이론(conflict theory)을 사용하였고 개발 정책은 종속이론에 근거하여서 구조적 종속을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시아는 공산주의와의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대륙이므로 막스 이론에 근거한 계급투쟁적인 갈등 이론보다는 기능이론(functional theory)을 받아들여지고 기존의 틀을 부인하지 않는 개발의 개념을 중심으로 신학을 형성하여 가게 되었다. 물론 이들도 동일한 해방을 목표로 천명하지만 그 방법론에는 기존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견해를 지지하게 된 것이다.

현재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로마 가톨릭의 상황신학자로는 강한 반미적 색채를 띠면서 Theology of Grassroots를 주장하는 필리핀의 Carlos H. Abesamis와 전세계 부와 토지 분배의 재구성을 요구하며 Planetary Theology를 주창하는 스리랑카의 Tissa Balasuriya, 불교와 기독교간의 대화를 주제로 하는 예수잇파의 신학자로 스리랑카의 Aloysius Pieris, 동양 종교의 범주 안에서 기독교의 위치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역시 예수잇파의 신학자로 인도의 Samuel Rayan 등을 말할 수 있다.²³

에큐메니칼 그룹의 상황화 신학 발달 과정

개신교 에큐메니칼 그룹에서 신학적 상황화 작업의 뿌리가 내린 것은 1968년 스웨덴의 옉살라에서 열렸던 세계교회협의회 제4차 총회였다. 두 개의 문서가 신학적 상황화에 관한 중요한 개념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들은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Worl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ection III)과 “국제 문제에 있어서의 정의와 평화에 관하여(Towards Justice and Peace in International Affairs)” (section IV)라는 문서들이다. Section III 문서에서는 현대적 상황에서 교회의

²³ Deans William Ferm, *Profiles in Liberation (Mystic : Twenty-Third Publications, 1988)*.

역할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선지자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직도-교회 조직이던, 산업체인던 정부 조직이던, 국제 조직이던-교회의 사명 범주 밖에 있는 것은 없다.”²⁴ 이는 정치, 사회, 경제 등의 영역도 교회의 선교적 사명의 범주에 속한다는 말이다. Section IV는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적용을 신학적으로 새로 반성해 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평화와 정의를 가져다 주시리라는 희망을 의미한다”라는 것이다.²⁵ 읍살라 회의는 이전의 복음 전파라는 선교의 고전적 개념을 벗어나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영역에서 에큐메니칼 교회가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개신교 에큐메니칼 그룹에게 신학적 상황화 작업을 전개시켜 나가도록 하는 문을 열어 주게 되었다.

아시아에서 에큐메니칼 그룹은 읍살라 회의 이전의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이런 신학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에서 아시아적 상황화 신학 분야에 가장 많은 진보를 보인 것도 에큐메니칼 그룹이다. 50년대부터 아시아의 여러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은 광대한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조직체를 희망하여 왔다. 함께 모이게 되자 이들은 상호 의견 교환과 공동의 행동을 통하여서 아시아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서구 세계관과 서구 역사에 근거한 서구 신학에 공통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자 곧 아시아의 상황과 역사에 맞는 아시아 신학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1959년 쿠알라룸프로에서 동아시아 기독교 협의회(East Asia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 EACC)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조직은 1973년에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Christian Conference of Asia : CCA)로 이름을 바꾸었다.²⁶

²⁴ *Ibid.*, p. 511.

²⁵ *Ibid.*, p. 513.

초기의 주제들은 “동아시아에서의 기독교적 전망”, “동아시아에서 교회의 공통적인 전도적 사명”, “함께 하는 증언” 등이었다.²⁷ 이 동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모임의 공헌에 대해서 M. M. Thoma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동아시아 기독교 협의회는 아시아인의 갈등과 행동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반성을 하며 그리스도의 왕권(kingship of Christ)에 대한 신학적 틀(theological framework)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들이 제시한 핵심적 주제와 문제들은 아시아인의 갈등 가운데서 국가적 건설에 명시적인 정치 구조와 정치경제 정책의 발전과 계획, 사회 발전에서 정의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형성 등이었다.”²⁸ 이는 아시아인들이 서구 세력에서 벗어나 국가의 건설을 열망하는 가운데 일어난 자연스러운 신학적 운동이었다. 이 당시 아시아 신학의 주제는 기독교 복음과 민족국가 건설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민족국가 건립의 신학(Nation-building Theology)”을 형성하게 된다. 인도 신학자인 M. M. Thomas가 이 신학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그는 민족 국가 건설이란 다양한 종족, 다양한 종교, 인종들이 거대한 공동 전선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설적인 정치적 비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의 신학적 방법론은 그리스도 중심의 혼합주의(Christ-Centered Syncretism)과 연관되어 있다.²⁹

²⁶ EACC/CCA의 역사에 대하여 자세한 것을 보려면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할 것. Young Bock Kim and Pharis J. Harvey, eds., *People Toiling Under Pharaoh: Report of the Action-Research Process on Economic Justice in Asia* (Tokyo: CCA/URM, 1976); Jae Shik Oh, ed., *Towards A Theology of People: I* (Tokyo: CCA/URM, 1977).

²⁷ Changwon John Suh, “A Formulation of Minjung Theology: Toward A Socio-historical Theology of Asia”, (Ph. D. diss., Union Theological Seminary, 1986), p. 203.

²⁸ *Ibid.*, pp. 203~4. 재인용 M. M. Thomas, *An Overview: Christian Action in the Asian Struggle*, p. 5.

²⁹ 서창원, 『제삼세계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272; 재인용 from M. M. Thomas, “Some Notes on a Christian Interpretation of

그는 진정한 기독교와 다른 기독교적 종교신앙, 사회종교 또는 세속적 이데올로기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시도를 하였다. 즉, 기독교와 다른 아시아 종교 문화의 영성이 상호 협력하여 인간화와 국가와 사회의 정치적 구조를 발전시키려는 의도였다.³⁰ 여기서 토마스가 말하는 영성이란 문화적, 종교적 넓은 의지라는 개념이다. 이는 서구 식민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지만 아직 확실한 것을 붙잡지 못한 초기에 서구에서 받은 기독교와 자신의 전통 사이에서 뚜렷한 자기 이데올로기가 없었던 아시아적 상황에 답해보려는 시도였다고 보인다.

1964년 방콕에서 EACC 총회가 열리게 되자 아시아의 에큐메니칼 신학의 흐름이 변화되어지게 된다. 주제는 “인간 공동체 내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Christian Community within the Human Community)”였다. 이곳에서 강조되어진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가 결코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와 별개로 떨어져서 정체감을 세워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³¹ 이 주제는 곧 아시아권에서 토착화 신학의 발전과 전개를 가져오게 되었다. 1966년에 동북아 신학교 협의회(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Theological Schools)에서 토착화 신학적 대화에 대한 주제로 모임이 열렸다. D. T. Niles가 불교권 내에서의 기독교 메시지의 형태에 대하여 글을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도 토착화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윤성범 교수에 의하여 한국적인 토착화 신학의 시도로 “성(誠)의 신학”이 형성되어지기도 하였다.³² 토착화란 기독교 신앙이

Nationalism in Asia”, *South East Asian Journal of Theology* 2:2 (1960).

³⁰ *Ibid.*

³¹ *Ibid.*, p. 273.

³² Sung Bum Yun, “Christian Confucianism and an Attempt at a Korean Indigenous Theology”, *The Northeast Asia Journal of Theology* 24(March 1980), pp. 101~110 and “Theology of Sincerity : An Attempt to Form a Korean Theology”, *The Northeast Asia Journal of Theology* 6 (September 1970), pp. 71~77.

아시아 문화적 상황에 가장 의미 있고 개념적인 구조와 형태로 재진술되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토착화 시도가 점차 전통 문화만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1970년초 Shoki Coe에 의하여 상황화가 발표되어지자 급격히 상황화 신학 시도로 넘어가게 된다. 상황화란 토착화가 가지는 일반적인 개념을 거의 포함하면서도 문화를 전통적이고 정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 동적으로 보며 그 범주가 정치, 경제, 사회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상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1968년 방콕에서 다시 EACC 제4차 총회가 열리면서 이제는 민중의 상황에 대한 집단적 투쟁의 방향으로 아시아 에큐메니칼 그룹의 상황화 신학의 흐름이 다시 바뀌게 된다. 1969년 이후로 EACC/CCA의 주제는 “아시아인의 갈등 가운데서 기독교인의 행동(Christian Action in the Asian Struggle)”, “아시아인의 고통과 희망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in Asian Suffering and Hope)”, “민중들과 함께 하는 그리스도 안의 삶(Living in Christ with People)”, 그리고 1985년 모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도록 자유케 하셨다(Jesus Christ sets us free to serve)” 등으로 표현되어졌다.³³ 강조점이 기독교인과 상황에서 민중에게로, 교회와 신학에서 그리스도로, 기독교적, 신학적 사명에서 그리스도의 민중에의 참여로 전이되어져 갔다. 이러한 강조점의 전이를 통하여서 “민중의 신학(Theology of People)”이 형성되어졌다.³⁴ 아시아에서 민중의 신학이란 현대 아시아 신학의 “역사화(historicalization)”를 향한 조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아시아 민중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신학적 반성이라는 것이다. 이 민중의 신학이라는 광의의 범주 내에서 각 아시아의 교회들은 자신의 독특한 해방의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데 특히 인도, 한국, 필리핀, 스리랑카 그리고 파키스탄 등에서 나름대로의 상황화 신학이 형성되어졌다.

³³ 자세한 내용은 앞에 나온 서창원의 학위논문을 참조할 것.

³⁴ 한국에서는 이 Theology of People을 특별히 Theology of Minjung으로 표현하지만 상호 연관된 신학이다.

특별히 앞의 아시아의 상황적 배경에서 언급한 아시아의 두 특성이 나름대로 반영이 되어지기 시작하였다. ‘제삼세계적 특성’에 대한 신학적 반성의 결과는 남미의 해방신학과 유사한 형태의 해방(Liberation)을 주제로 한 신학의 형성을 보게 되었다. 아시아의 해방신학자들은 “아시아는 전세계 빈민의 85~90%가 모여 있는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 그리고 수천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취를 당해왔고 근대의 약 500년 가량은 서구인에게 착취를 당했다”고 지적하며 아시아에서 빈곤과 착취로부터의 해방이 신학적 주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³⁵ 두 번째 특성인 ‘아시아적 특성’에 대한 신학적 답변은 문화화(Inculturation)의 개념을 도입하는 신학의 형성을 보게 되었다. 이들은 비기독교 문화의 종교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문화화 신학의 형성이 아시아 신학을 다른 지역의 신학과 구분을 지어주는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상황신학은 이 두 부류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 두 부류의 시도를 혼합한 신학의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서창원 교수는 이들 신학자들의 신학 형태를 다섯 가지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1) 순수 종교 문화적 신학 형태 - 타종교와의 대화에 주된 관심을 두는 형태로 인도나 스리랑카의 불교, 힌두교 문화 지역의 신학자들이 주로 추구하는 신학 형태이다. Lynn de Silva, Stanley J. Samartha, Raimundo Panikkar 등이 이에 속한다. 2) 종교역사적 신학 형태 - 이들은 종교문화적 방법보다는 좀더 넓은 관점으로 아시아의 종교성의 문제를 현대 아시아인의 역사적 상황에서 논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종교문화적 형태와 마찬가지로 사회정치적 분석은 시도하지 않고 단지 종교성만을 강조한다. Rienzie Perera, Kosuke Koyama 그리고 가톨릭의 Aloysius Pieris 등이 이에 속한다. 3) 순수 사회정치적 신학 형태 -

³⁵ Theo Witvliet, *A Place in the Sun : Liberation Theology in the Third World* (Maryknoll : Orbis Books, 1985), p. 154.

남미 해방신학적 방법에 속하는 신학 형태이다. Edicio de la Torre와 가톨릭의 Carlos H. Abesamis 등이 이에 속한다. 4) 사회문화적 신학 형태 - 아시아의 영성을 중심으로 하되 행동신학적인 성향을 띤다. 이들이 이해하는 영성은 주로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고 정치적 성격은 약하다. Preman Niles와 C. S. Song 등이 이에 속한다. 5) 사회 역사적 신학 형태 - 한국의 민중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신학 형태로서 아시아 민중의 종교문화적 표현과 사회정치적 상황의 긴장을 극복하려는 신학적 시도이다. 한국의 민중신학자들과 가톨릭의 Tissa Balasuriya 등이 이에 속한다.³⁶

복음주의 그룹의 상황화 신학 발달 과정

개신교 복음주의 그룹의 상황화 신학에 대한 관심은 다른 그룹에 비하여서 시기적으로 늦게 시작되고 그 전개 과정도 상당한 조심과 경계를 가지고 서서히 되어진다. 1962년의 Peru Consultation이라든지 1969년 Latin American Congress on Evangelism(CLADE I) 등에서 초기 상황화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후 FTL(Fraternidad Teologica Latinamericana)이 형성되면서 좀더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결국 1974년 로잔회의에서 이 주제가 본격적인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Byang Kato의 “복음, 문화적 상황화, 종교적 혼합주의”라는 논문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희석되지 않으면서 문화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되는 상황화를 요구하게 되었다.³⁷ 로잔회의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모든 복음주의 그룹이 흔쾌히 이를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아니고 이후 다양한 모임에서 연구가 계속되었다. 1974년의 Evangelical

³⁶ 서창원, 『제삼세계신학』, pp. 280~81.

³⁷ Byang Kato, “The Gospel, Cultural Contextualization, and Religious Syncretism”, in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ed., J. D. Douglas(Minneapolis : World Wide Publication, 1975), pp. 1216~23.

Foreign Missions Association Executives Retreat이라든지 1979년의 Consultation on Theology and Mission at TEDS 등에서 이 주제가 논의되어지고 마침내 1979년 윌로우뱅크에서 열린 Consultation in Willowbank에서 결론이 나게 된다. 이 회의에서는 상황화의 성서적 정당성을 확인하게 된다.³⁸ 이후 복음주의 그룹 내에서도 복음주의적 상황화 신학에 대한 시도가 시작되어진다.

아시아에서는 역시 이보다 늦게 1982년 제 6 차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Theological Consultation 에서 “아시아 상황에서의 신학과 성서 (Theology and the Bible in Asian Context)”라는 주제로 복음주의적 상황화 신학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³⁹ 이때까지만 해도 아시아권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상황화’라는 개념에 대하여서 부정적 인상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 ATA의 회장인 Dr. Ken R. Gnanakan은 “상황화라고 하면 즉시 성서(text)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 신학 사조”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⁴⁰ 이 대회에서 아시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상황화의 필요성에 대하여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아시아의 독특한 상황에 비추어서 불교권, 힌두교권, 이슬람권, 전제주의 국가 등에서의 신학적 반성에 대하여서 발표하였다. 특별한 공헌은 가톨릭이나 에큐메니칼 그룹의 추세와는 달리 무오하고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한 신학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성서신학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그 발표문이라든지 전체적인 논조는 구체적인 상황화의 방법이나 신학 형태에 있기로

³⁸ John R.W. Stott and Robert Coote, eds., *Down to Earth : Studies in Christianity and Culture*(Grand Rapids : Eerdmans Publishing Co., 1980).

³⁹ Bong Rin Ro and Ruth Eshenaur, eds., *The Bible and Theology in Asian Contexts*(Bangalore :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1984)을 참조하라.

⁴⁰ *Ibid.*, foreward.

다는 신학적 혼합주의, 만인구원론, 문화수용(accommodation) 등의 경향에 대한 경고에 더 중점을 두었다. 자체적으로도 이 회의 결과 발표된 “서울 선언문(Seoul Declaration)”이 교회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하는 강력한 표현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⁴¹

그러나 이 회의는 아시아의 복음주의자들에게는 복음적 상황화 신학 작업의 공식적 출발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 인도에서 활동하는 WEF의 스탭인 Bruce J. Nicholls라든지 *Sharing Jesus in the Two Third World*를 편집한 Vinay Samuel 와 Chris Sugden 등이 많은 글을 발표하면서 복음적 상황화 신학 형성에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⁴² 80년대 후반부터는 아시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간에도 신학적 상황화가 주요한 학위 논문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종합적 평가

아시아에서 상황화 신학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쉽지 않은 작업이다. 아시아에서는 남미의 메텔린 회의와 같은 것도 없었고 구티에레즈 같은 인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순간 어떤 회의에서 결정적인 신학이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져 갔다. 특성적으로 본다면 아시아는 아시아적 특성과 제삼세계적 특성 양자를 혼합시키려는 신학적 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자를 성공적으로 혼합시켰다고 평가할 만한 신학 형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듯하다.

전반적으로 제삼세계적 특성을 강조하는 신학 형태는 남미의 해방신

⁴¹ *Ibid.*, p. 21.

⁴² 참조 ; Bruce J. Nicholls, *Contextualization : A Theology of Gospel and Culture*(Downers Grove : InterVarsity Press, 1979)와 Vinay K. Samuel and Chris Sugden, eds., *Sharing Jesus in the Two Third World : Evangelical Christologies from the Contexts of Poverty, Powerless, and Religious Pluralism*(Bangalore : Partnership in Missions, 1983).

학에 비하여서 혁명적 성향이 적은 온건한 성향을 띠는 것이 특색이라고 보인다. 아시아적 특성에서는 인도와 스리랑카 지역의 신학자들은 우주적 그리스도(Cosmic Christ)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고 동아시아 쪽에서는 동양 전통 철학과 종교를 매체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다. 각 신학자들의 대표적인 신학 형태들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인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는 다음 번 논문의 과제로 넘기겠다.

참고문헌

- 서창원, 『제삼세계신학』 저술 : 대한기독교서회, 1993.
- Abbott, Walter M. *The Documents of Vatican II*. Piscataway : New Century Publishers, 1966.
-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 Orbis Books, 1991.
- Desrochers, John. *The Social Teachings of the Church*. Bangalore : Sidma Press, 1982.
- Douglas, J. D.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 World Wide Publication, 1975.
- Ferm, Deans William. *Profiles in Liberation*. Mystic : Twenty-Third Publications, 1988.
- Flannery, Austin. *Vatican Council II : The Conciliar and Post Conciliar Documents*. Northport : Costello Publishing Co., 1975.
- Germillion, Joseph. *The Gospel of Peace and Justice, Catholic Social Teachings Since Pope John*. Maryknoll : Orbis Books, 1976.
- Hesselgrave, D. J. ed., *Theology and Mission*.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8.
- Hesselgrave, D. J. and Edward Rommen. *Contextualization : Meaning, Methods, and Models*.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9.

- Kim, Young Bock and Pharis J. Harvey. eds. *People Toiling Under Pharaoh : Report of the Action-Research Process on Economic Justice in Asia*. Tokyo : CCA/URM, 1976.
- Luzbetak, Louis J. "Signs of Progress in Contextual Methodology." *Verbum SVD* 22(1981) : 39~57.
- Nicholls, Bruce J. *Contextualization : A Theology of Gospel and Culture*. Downers Grove : InterVarsity Press, 1979.
- Oh, Jae Shik. ed., *Towards A Theology of People : I*. Tokyo : CCA/URM, 1977.
- Ro, Bong Rin and Ruth Eshenaur, eds., *The Bible and Theology in Asian Contexts*. Bangalore :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1984.
- Samuel, Vinay K. and Chris Sugden, eds., *Sharing Jesus in the Two Third World*. "Bangalore" Partnership in Missions, 1983.
- Stott, John R.W. and Robert Coote, eds. *Down to Earth : Studies in Christianity and Culture*. Grand Rapids : Eerdmans Publishing Co., 1980
- Suh, Changwon. "A Formulation of Minjung Theology : Toward A Socio-historical Theology of Asia." Ph. D. diss., Union Theological Seminary, 1986.
- Theological Education Fund. *Ministry in Context : The Third Mandate Programme of Theological Education Fund(1970~1977)* Bromley : New Life Press, 1972.
- Torres, Sergio and Virginia Fabella, eds., *The Emergent Gospel : Theology from the Underside of History*. Maryknoll : Orbis Books, 1978.
- Ukpong, Justin S. "What is Contextualization?" *Neue Zeitschrift für Missionswissenschaft* 3aft p. 34, no.3(1987) : pp. 161~68.
- Witvliet, Theo. *A Place in the Sun : Liberation Theology in the Third World*. Maryknoll : Orbis Books, 1985.
- Yamamori, Tetsunao and Charles R. Taber. eds. *Christopaganism or Indigenous Christianity?* Pasadena : William Carey Library, 1975.